

부진이 뭔데?...류현진 6이닝 무실점 호투 13승 달성

시속 150km 직구로 양키스 제압
MLB 한시즌 개인 최다승 ‘-1’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8월의 부진을 깨끗하게 씻고 9월 첫 경기에서 호투하며 시즌 13승(8패)을 달성했다.

류현진은 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양키스 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3피안타 무사사구 6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팀의 8-0 승리를 이끌었다.

올 시즌 평균자책점은 3.92에서 3.77로 낮췄다. 투구 수는 80개였다.

13승을 수확한 류현진은 아메리칸리그 다승 단독 2위에 올랐다. 리그 다승 1위 게릿 콜(14승·양키스)과는 단 1승 차이다.

아울러 MLB 개인 한 시즌 최다승 기록에도 1승 차이로 다가섰다. 류현진은 2013년과 2014년, 2019년에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각각 14승씩을 기록했다.

이날의 승리는 의미가 크다.

류현진은 8월 한 달간 최악의 시간을 보냈다. 지난달 6경기에서 평균자책점 6.51을 기록했다.

한국시간 9월 1일, 미국 시간 8월 31일 치른 지구 최약체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에선 6회 2사까지 노히트 행진을 이어가다 와르르 무너지며 시즌 8패째를 당했다.

류현진은 현지시간으로 9월 첫 등판인 이날 심기일전한 듯 답수룩했던 수업을 깔끔하게 밀고 나왔다.

류현진이 달라진 건 얼굴만이 아니었다.

평소 140km대 후반을 기록하던 직구 최고 구속은 151km(93.9마일)를 찍었다.

주무기 체인지업과 컷패스트볼의 움직임도 좋았다. 힙과 제구력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류현진은 1회초 팀 동료 마커스 시미언과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연속 타자 홈런으로



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 원정경기에 선발등판한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이 1회 투구하고 있다. /USA투데이=연합뉴스

2-0으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랐다.

가벼운 마음으로 경기를 시작한 류현진은 2회까지 여섯 명의 타자를 완벽하게 잡았다.

1회 선두타자 D.J. 레메이휴를 컷패스트볼을 이용해 3루 땅볼로 제압했고, 후속 타자 조이 겔로는 체인지업으로 헛스윙 삼진 처리했다.

에런 저지에게는 이날 최고 구속인 151km 직구를 던져 유격수 땅볼로 잡았다.

1회를 단 12구로 마친 류현진은 2회에도 효율적인 투구를 이어갔다.

장칼로 스탠턴을 우익수 뜬 공으로 잡아 산뜻하게 출발했다. 후속 타자 앤서니 리조에게엔 정타를 맞았는데, 토론토 우익수 테오스카 에

르난데스가 호수비를 펼치며 아웃 카운트를 늘렸다.

팀 동료의 도움을 받은 류현진은 게리 산체스를 유격수 땅볼로 잡고 2회를 마쳤다.

3회엔 첫 안타를 허용했다. 류현진은 1사에서 브렛 가드너를 상대로 초구 직구를 던졌다가 자신의 옆을 스치며 중견수 앞으로 굴러가는 안타를 허용했다.

그러나 류현진은 히오 우르셀라와 레메이휴를 모두 유격수 땅볼로 정리했다.

류현진은 4회에도 삼진 2개와 내야땅볼 1개로 깔끔하게 막았다. 150km대 직구를 앞세워 힘으로 극복질렀다.

그는 2사에서 스탠턴을 상대로 3볼에 몰렸는데 체인지업과 컷패스트볼로 풀카운트를 만든 뒤 다시 컷패스트볼로 헛스윙을 유도해 삼진 처리했다. 볼넷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였다.

5회엔 선두 타자 리조에게 9구 접전 끝에 좌전 안타를 내줬지만 산체스를 1루수 파울 플라이, 글레이버 토레스를 헛스윙 삼진, 가드너를 유격수 땅볼로 잡고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류현진은 6회에도 선두타자 우르셀라에게 좌전안타를 허용했다. 그러나 후속 타자 레메이휴를 6-4-3 병살타로 잡은 뒤 겔로를 루킹 삼진으로 처리하며 위기를 탈출했다.

류현진은 이날 겔로와 3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삼진을 뺏았다.

류현진은 직구 30구, 컷패스트볼 22구, 체인지업 21구, 커브 7구 등 다양한 구종을 골고루 던지며 양키스 강타선을 공중 무였다.

토론토는 9회초 에르난데스가 솔로 홈런, 시미언이 만루 홈런을 터뜨리며 8-0으로 크게 이겼다.

게레로 주니어는 데뷔 첫 40홈런을 기록했다. 게레로 주니어는 아버지인 게레로 시니어와 함께 역대 두 번째 부자(父子) 40홈런 진기록도 만들었다. 첫 번째 기록은 세실 필더-프린스 필더 부자가 세웠다. /연합뉴스

광주대, 대학농구 U-리그 ‘준우승’

단국대에 67-79 석패

광주대학교가 대학농구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대는 지난 6일 건국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2021 KUSF 대학농구 U-리그 플레이오프 여대부 챔피언전에서 단국대에 67-79(10-25 15-10 20-19 22-25)로 패했다.

양지원(28점 8리바운드 7어시스트)은 이날 양팀 가운데 유일하게 20점 이상을 기록했으나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유이비(15점 5리바운드 3어시스트 4스틸 2블록)와 박세별(10점 5리바운드 2어시스트)도 두 자리 득점으로 분전했다.

광주대는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3번째 챔피언에 도전했지만, 단국대의 벽에 막혀 준우승에 머물렀다. 하지만 3학년 이하 선수들로만 이번 대회를 소화한 광주대로서는 다음 대회를 기약할 수 있게 됐다. 광주대 출전 선수중 전세은만 3학년이며, 양지원, 박세별, 김원지는 2학년, 유이비는 1학년이다.

광주대는 1쿼터에서 3점수 5개를 모두 놓치면서 10-25로 끌려갔고 2쿼터 초반에는 10-29, 19점 차까지 뒤처졌다. 하지만 단국대의 집중력이 흔들린 틈을 놓치지 않은 광주대는 25-35, 10점 차이로 추격하며 전반을



광주대학교가 2021 KUSF 대학농구 U-리그 여대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대 제공

마쳤다.

3쿼터는 양지원, 유이비, 박세별의 활약에 34-37, 3점 차까지 바짝 따라붙는 듯했으나 3쿼터 막판 실점하며 45-54로 4쿼터를 맞았다.

광주대의 뒷심은 계속됐다. 4쿼터 초반 53-58로 다시 5점 차까지 따라갔다. 하지만 초반 벌어진 점수 차를 뒤집는데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준우승으로 리그를 마쳤다.

광주대 국선경 감독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

와주시는 총장님과 운동부 부장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준우승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뛰어올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광주대라고 하면 여대부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말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 KUSF 대학농구 U-리그에서 양지원이 득점상(108점)과 수비상(18개), 유이비가 어시스트상(33개)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진화 기자

유럽, 솔하임컵서 미국 꺾고 2회 연속 우승

미국과 유럽의 여자 골프 대항전인 솔하임컵에서 유럽이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유럽은 7일(한국시간) 미국 오키와주 털리도의 인바네스 클럽(파72)에서 열린 제17회 솔하임컵 마지막 날 싱글 매치플레이에서

5승 2무 5패를 기록했다.

앞선 이틀간 이어진 포섬과 포볼 매치에서 9-7로 앞섰던 유럽은 싱글 매치플레이 결과를 포함해 최종 스코어 15-13으로 승리했다.

유럽은 대회 전엔 현 세계랭킹 1위 넬리 코

다를 앞세운 미국에 객관적 전력에서 밀린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첫날 포섬 경기에서 3승 1무로 압도한 뒤 둘째 날까지 우위를 이어갔고, 2019년(14.5-13.5)보다 더 나은 점수로 우승을 일궈냈다.

솔하임컵에 데뷔한 리오나 머괴이어(아일랜드)가 이날 4승 1무를 올리며 출전 선수 중 가장 좋은 결과를 남겼다. /연합뉴스

KBO, 야구팬 소통 플랫폼 강화 메타버스 공간 마련·NFT 개발

KBO가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과 NFT(대체불가토큰) 상품 개발 등으로 젊은 야구팬에게 다가간다.

KBO는 7일 “팬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다양한 콘텐츠, 새로운 플랫폼 개발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이를 강화하고자 메타버스 공간 마련, NFT 상품 개발 등 다양한 경로로 팬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KBO는 KBO리그 타이틀 스폰서인 신한은행과의 협업으로 야구팬들이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을 마련해 공동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KBO는 “포스트시즌 기간에 경기 스코어 맞추기, 메타버스 응원전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경품을 제공해 야구팬들에게 새로운 즐길 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에 익숙한 야구팬들을 대상으로 NFT 기반 디지털 상품의 개발 및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KBO는 올해 초부터 10여 개 이상의 관련 사업자와 NFT 디지털 상품 사업에 관한 제안을 받았고 블록체인 및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미국프로농구(NBA) 등 해외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예술, 게임 시장 등에서 활용되는 NFT 디지털 상품처럼 국내 야구팬을 만족시킬 수 있는 KBO리그 맞춤형 NFT 개발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KLPGA투어 ‘국내파’ 자존심 대결 주목

내일 KB금융 스타챔피언십

박인비·김효주·박민지 등 출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네 번째 메이저 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이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이천의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파72·6,689야드)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박인비(33)와 김효주(26), 전인지(27) 등이 출전해 박민지(23), 장하나(29), 박현경(21), 최혜진(22) 등 ‘국내파’ 선수들과 벌이게 될 자존심 대결에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올해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박인비는 지난해 8월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이후 13개월

만에 국내 대회에 출전한다.

역시 올림픽 대표였던 김효주는 지난해에 이어 이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김효주는 도쿄올림픽 이후 이번이 첫 대회 출전이다.

KB금융그룹 후원 선수인 전인지는 7일 메이저 대회 예비 챔피언십 공동 6위의 상승세를 이번 대회에서도 이어갈 태세다.

이에 맞서는 ‘국내파’ 들은 시즌 6승의 박민지를 필두로 평균 타수 1위 장하나, 상금 2위 박현경 등이 메이저 정상에 도전장을 던졌다.

시즌 상금 1위 박민지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해 상금 2억1,600만원을 받게 되면 시즌 상금 14억 9,000만원을 남긴다.

역대 KLPGA 투어 한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은 2016년 박성현(28)의 13억3,309만원이다. 박민지는 단독 4위 상금 6,000만원만 받아도 박성현을 추월할 수 있다. /연합뉴스